

한덕수 검증의 시작은 ‘땅’ 입니다

오늘 새벽, 한덕수 옹립을 위한 국민의힘 경선 쿠데타, 또 하나의 내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란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로, 대한민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내란세력이 윤석열 후계자로 낙점하고 밀어붙이는 한덕수. 국민의힘이 자정해서 걸러내지 않으니, 저희가 검증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땅’ 입니다.

그리고 석연치 않은 ‘행정’ 입니다.

지난 3일, 인천경기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하다는 인천대공원 인근에 한덕수 배우자 최아영 씨 일가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임야와 관련해서 최 씨 일가가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덕수 배우자 최아영 씨 일가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산 74-9, 31만 9천㎡의 임야. 이 땅은 2013년 6월 24일, 송영길 시장 시절 인천대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그런데 3년 5개월 만인 2016년 11월 14일, 유정복 시장 시절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전격 폐지됩니다.

인천시가 밝힌 폐지사유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폐지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돼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라’고 지침을 변경해 공원구역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도된 인천시의 해명은 옳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관련 조항을 변경한 시점은 2011년 4월 4일, 인천시가 공원구역 지정하기도 훨씬 전의 일입니다. 보도에 따른 인천시 해명대로라면, 인천시는 공원구역 지정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 지침의 해당 조항은 강제가 아니라 “변경(해제)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지침으로 공원구역의 일부를 변경(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구역 전체를 폐지한 사례가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유일합니다.

인천대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폐지된 땅의 사유지 비율이 99.2%였고, 사유지 전

체가 최아영 씨 일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더욱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이 땅은 일가 자손들 대상으로 심지어 며느리, 손주에게도 지분 쪼개기 증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덕수는 지분 쪼개기 증여에 예외적으로 빠져있습니다.

토지대장을 보면, 현재 유지재단과 함께 해당 땅의 지분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최현식 씨의 아들, 딸, 며느리, 손주 등 25명입니다. 2017년에는 불과 2~3살에 불과했을 2014년과 2015년 생 손주, 그리고 외국 국적의 손주들에게까지 지분 증여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이 때에도 최 씨 일가 중에서 유독 최현식 씨의 사위인 한덕수와 또 한 명의 사위만이 빠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본인 이름만 없으면 공직자 재산신고의 감시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지분 쪼개기 증여는 통상적으로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한덕수와 배우자 최아영 씨에게 묻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폐지와 관련하여 인천시에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 땅의 지분 쪼개기 증여가 이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천시에도 묻습니다.

석연치 않은 행정으로 최아영 씨 일가 땅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폐지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인천대도시자연공원구역이 최아영 씨 일가 관련 땅이라는 것, 몰랐습니까?

한덕수와 최아영 씨 일가로부터의 공원구역 폐지 관련 요구가 있었습니까?

한덕수와 최아영 씨, 인천시는 분명하게 답하기 바랍니다.

가족 땅을 위해 권력을 이용해서 행정을 비트는 방식, 우리는 이미 익숙합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과 같은 꼼수나 빌드업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이제 검증은 시작입니다.

한덕수와 최아영 씨 일가의 땅,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2025년 5월 10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강득구, 부단장 정준호·박관천